

#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제고, 무엇이 가로막고 있나

강운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wskang@cerik.re.kr

**건** 설산업은 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와 건설 투자자의 지속적 감소, 그리고 기업 경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2010년 건설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9%로 12개 업종 중에서 최하위인 것이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체들에게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최대의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중소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외부적인 환경에도 큰 원인이 있지만, 기업 내부적으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전근대적 지배구조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오랫동안 정부의 보호와 간섭에 순치되어 자구적인 노력에 소홀한 경향도 있다.

## 내부적 장애 요인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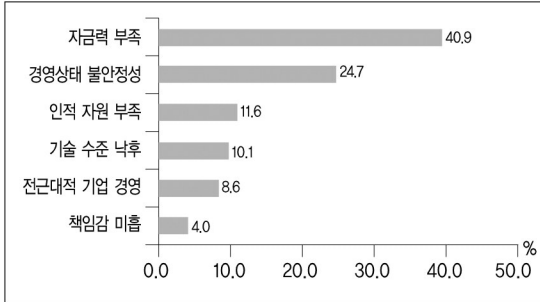
설업체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금력 부족'과 '경영 상태의 불안정성', '인적 자원 부족', '기술 수준 낙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 물량 축소로 민간공사 및 자체 사업 추진 등으로 눈을 돌린 중소기업체들의 파이낸싱 능력의 부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금력 부족과 경영 상태의 불안정은 후속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소기업으로서의 태생적 한계인 동시에 재무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술 수준을 중소기업체의 가장 큰 약점으로 보는 응답자는 10.1%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체의 기술력의 격차가 중요한 제약 요인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소기업체의 강점으로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대한 세심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양호', '신속한 의사결정' 등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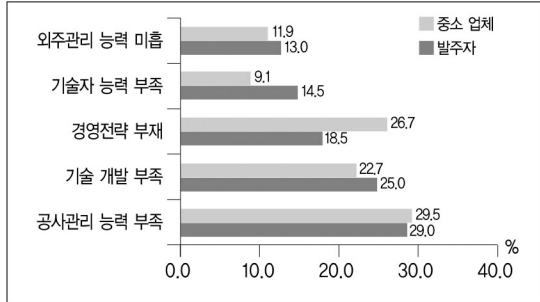
## 경쟁력 정체 또는 악화 인식

발주자와 중소기업체 모두 중소기업체 경쟁

**중소 건설업체의 가장 큰 약점**



**중소 건설업체가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력이 최근 5년 동안 정체 또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경영상의 위기를 외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기업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시공 경쟁력은 55.6~59.1점의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시공 경쟁력에 비해 소프트한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력, 구매 조달, 견적, 금융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대기업의 평균 경쟁력에 비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로 발주기관은 '공사관리 능력의 부족'이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고, '기술 개발의 부족', '기술자 능력 부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소기업 역시 공사관리 능력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 경영 전략의 부재 26.7%, 기술 개발의 부족 22.7%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발주기관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발주기관에서는 기술자 능력 및 외주 관리 등을 중시하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경영 전략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수행한 건설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7%(매우 만족 포함)에 그친 반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도 9.9%에 달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공사에 대한 만족도가 실제적으로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경쟁력 저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 경쟁력 수준**

(대기업 평균 경쟁력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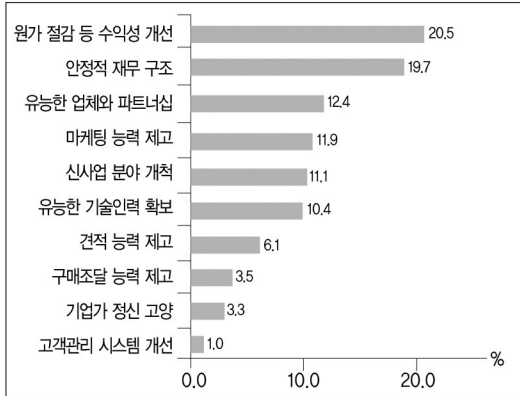
구분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평균)
건축공사	주택	55.9
	비주택	55.6
토목공사	일반 토목(도로, 철도 등)	59.1
	기타 토목(상하수도, 조경 등)	58.7
영업력		48.6
구매 조달 능력		51.1
공사 수행 능력		62.3
견적 능력		55.3
금융 능력		43.7

**정책적 장애 요인**

현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은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물량 배분 등의 직접 규제 방식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 정책은 그 종류 및 내용에 있어서 다양

## 특집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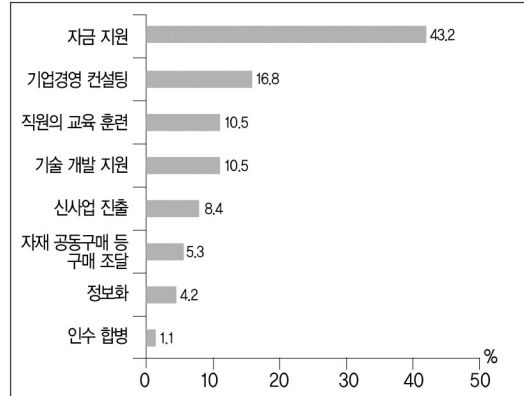
하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실제로 지난 10년 간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원가 관리 등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지적되었다. 전체 중소기업의 21.4%가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안정적 재무구조의 달성', '유능한 하도급업체와의 안정적 협력 관계 구축', '수주 마케팅 능력 제고',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견적 능력 제고와 유능한 기술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다는 점이 특이하다.

물량 배분 등의 직접 규제 정책 이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시행하

향후 중소기업 지원 제도 모색시 가장 유용한 분야



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은 모두 201개 정도로 총 9.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제조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내용 파악이 가능한 105개 사업을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에 지원 가능한 사업은 5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3개뿐이고, 편성된 예산도 90억 원에 불과하다. 중기청 예산을 제외한 3.7조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 중 건설업 적용이 가능한 제도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원한다면 큰 정책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중소기업 지원 제도 모색시 가장 유용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자금 지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중소기업체가 스스로의 취약점이자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자금 조달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체에 맞는 기술 개발 프로그램(R&D), 정보화 등도 향후 검토해볼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이다. CERIK